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0호 【루게 제24928호】주제104(2015)년 5월 30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9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네 팔신문 《아르판》,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신창양여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미국의 UPI통신, 세네갈신문 《레볼루레르》, 튀르키예신문 《하베르레

르. 콤》, 도이칠란트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중강자라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석막대사양언어종어장과 락산바다언어양어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언어종어장과 언어양어사업소를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종어장의 알깨우기실, 어민고기사육실 등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종어장에서 물을 재순환시켜 쓰고있는데 대해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언어양어사업소가 정말 명당자리에 꾸러졌다고 하시면서 별세상에 온것 같다고, 여

기에서 대대손손 물려갈 조국의 귀중한 재산을 또 하나 보게 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온종일 걸었으나 힘든줄을 모르겠다고, 인민군대가 맡고있는 단위들에 가보면 언제나 기쁜 일이 기다린다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만족해하시였다. 네 팔신문과 도이칠란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본사기자

령도자의 담력과 배짱으로 백승을 떨쳐가는 조선인민

여러 나라인사들 격찬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며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만대적들을 위락위락하시는 드센 담력으로 편편편 승의 역사를 창조하신다.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르는 적대세력의 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준엄한 철수를 내리시였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사변들과 반제투쟁의 빛나는 성과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무한한 고무와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사회건설의 승리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며 사회주의강대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고계신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원수님의 령도밑에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오고있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만대적들을 위락위락하시는 드센 담력으로 편편편 승의 역사를 창조하신다.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르는 적대세력의 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준엄한 철수를 내리시였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격동적인 사변들과 반제투쟁의 빛나는 성과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무한한 고무와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사회건설의 승리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있다.

령도자의 강인담대한 배짱이 있어 조선인민은 천만대적앞에서도 끄떡없었다고 하면서 메히고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

명국건설을 다그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

리만이 있을것이라고 격찬하였다.

로씨야민주국구전선 위원장은

김정은동지의 출중한 자질과 정치실력에 세계가 경탄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종모를 그대로 계승하시고 인민이 지지하고 따르는 훌륭한 정치를 펴나가시는 걸출한 령도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회 위원장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속에서도 선군의 가치를 변함없이 추구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에로의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는 조선의 모습에서 김정은령도자의 정치의 위대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벨라루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회색의 정치가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신심뜨노이 전진하고있다.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3호

주제104(2015)년 5월 29일

장정화동지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20살 꽃나이에 《처녀어머니》가 되어 7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애지중지 키우는 고상한 정신과 훌륭한 미덕을 발휘하여 만사람을 감동시킨 남포시 천리마구역사회급양관소 청년동맹원 장정화동지에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양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대동강요보도를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전투장들마다에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

이 세차게 타고오고있다.

지금 옥류교로부터 대동교까지 향안기슭의 유보도는 당이 준 과업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현재 모든 구간의 장식 및 웅벽쌓기와 갯돌쌓기작업이 전반적으로 끝났다. 이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장마철전으로 전반적인 공사를 마무리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화현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돌회해를 막고 강화현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대동강요보도를 보다 훌륭히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사를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완벽하게 끝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힘있게 내밀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공사에 펼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고무발식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확실히 하고 힘있게 벌려나

고있다. 붉은기가 숲을 이룬 전투장들은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힘있는 화선선등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공사지휘부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에 맞게 단계별목표를 줄여 세우고 시공지도를 짜고들며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지휘부일군들은 시공단위 일군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자체보장을 선행시키고 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날마다 공사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매일 현지에서 시공단위 당, 행정책임일군들과 공사장의 전구간을 돌아보며 건설에 참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힘있는 정치사업도 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시공단위 당책임일군들은 건설에 펼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수형결사옹위, 당정책결사판철을 핵으로 하는 정신이외 속도이라는 당의 요구를 깊이 심어주면서

말은 작업과제를 하루빨리 끝내도록 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불타는 열의밑에 펼쳐나선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리며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장식 및 웅벽쌓기공사에 전반적인 공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2단계공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평양시가 수행의 유훈판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가 되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한다는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공사에 펼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40일은 걸려야 한다던 장식 및 웅벽쌓기공사를 20일만에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었다.

서성구역, 대성구역, 중구역과 락랑구역이 맡은 과제를 선창으로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서성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950년대 평양속도창조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앞선 시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제일먼저 웅벽쌓기작업을 끝내고 혼석위체움작업과 유보도포장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구역, 락랑구역의 책임일군들은 장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판상들을에 달려나갈 광부들속에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벌려 부속되는 많은 량의 장식을 해결해오는것과 함께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공사에 참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작업과제를 제기에 끝내도록 하고있다.

특히 중구역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그들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불리한 작업조건으로 지연된 작업과제를 5일만에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시당위원회일군들로 조직된 돌격대에서도 공사의 제일 어려운 구간을 자진하여 맡아 치열한 전투를 벌려

선 단위들을 따라잡아 공사일정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공사에 펼쳐나선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공사장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대중을 위훈창조으로 적극 고무추동하도록 하고있다.

평양가금생산국, 중앙열망사업소, 김만유병원, 평양시승강기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단

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날에날마다 위훈을 창조하며 맑은 공사파제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반적인 장식 및 웅벽쌓기공사를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단계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전당, 전국이 달려붙어 잘 도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선군령도의 그바쁘신 속에서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1호, 2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당위원회들,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를 다해 지원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판철에 펼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접한 내각 책임일군들은 1200t의 세멘트를 비롯한 많은 건설자재를 즉시 보장해주고 발전소건설현지에서 편파반부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제기되는 문제들

을 풀여주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가지고온 많은 지원물자들을 발전소건설현까지 회부에 넘겨주었다.

국가계획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대형버스 1대, 전력케이블 1100m와 생활필수품들을 넘겨주고 자체보장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국토환경정보보호에서는 2차에 걸쳐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과 10종에 1600여점에

달하는 후방물자와 생활필수품들을 지원한데 이어 10만그루의 나무모를 보내주었다.

림업성에서도 1만 5천그루의 나무모와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높여주었다.

제신성과 화학공업성의 책임일군들은 지휘통신보장에 필요한 통신기재들과 피대, 각종 호스를 비롯한 자재들과 많은 후방물자들을 현지에서 넘겨주어 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기계공업성의 일군들도 많은 케블과 절연선,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여 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다.

교육위원회, 대외경제성, 농

업성, 최고검판소, 최고검찰소, 무역은행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군들이 발전소건설현장에서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에게 넘겨주면서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줄것을 절절히 부탁하였다.

금속공업성, 건설기계공업성, 식원공업성, 상업성, 경공업성, 전자공업성, 국가검열위

합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으로 발전소정을 따라 전당대와 1호발전기실을 돌아본 다음 평양시리단에서 당창건 일흔돐전으로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줄것을 절절히 부탁하였다.

금속공업성, 건설기계공업성, 식원공업성, 상업성, 경공업성, 전자공업성, 국가검열위원회, 국가자원개발성, 보건성, 도시경영성, 특별운송에서도 많은 공사용자재들과 후방물자들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지원하였다.

특히 만수대에 술단에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찾아가 성의껏 마련한 7종에 6400점의 후방물자들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넘겨주고 소련대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서 건설장의 전투적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평양시, 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들을 비롯한 도, 시, 군당책임일군들이 앞장서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지원하고있다.

얼마전 구역당책임일군들과

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를 다해 지원하고있다.

로향지도국 부원 정항미동무는 제취업현장에서 사업하는 어머니와 함께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성, 중앙기관대 청년돌격대원들을 찾아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으로 적극 지원하였으리

다거국단을 비롯한 중앙에술단체 예술인들로 무어진 경제선대원들은 성의껏 마련한 생활필수품들을 넘겨주고 경제선동맹들을 힘있게 벌려 청년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다.

경흥군 경흥소학교의 나이런 최홍범학생과 혜산시 성후고급중학교 백성혁학생은 발전소건설장주변에 푸른 숲을 벌립트기운 애국의 마음안고 분투기와 2000그루의 이빨나무모를 가지고 건설장에 찾아와 청년돌격대원들을 감동시켰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의 힘있는 지원으로 하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은 더욱 빠른 속도로 전진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10여개 대상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자강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 만반대개의 애국위업이며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강도에서 건설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물결푸른 장자강기슭에 강계림체물동원화반이 일떠서고 도기상수문본국건설이 기본적으로 끝난데 이어 도옥아원, 도애육원, 장자산소년단야영소, 자강도《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 도체육원, 도시설계연구소, 양로원, 양생원을 비롯한 10여개에 달하는 대상건설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전설지휘부의 일군들은 여러 건설대상들의 자체보장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맞게 선후차들을 옮겨 정하고 전반적인 대상건설을 적극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에 따라벌려 일떠서는 도옥아원, 도애육원《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건설을 맡은 도청년돌격대의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투쟁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이미 있던 4층건물을 흔적도 없이 들어내고 천수백㎡의 기초굴착작업, 수백㎡의 콘크리트기초타입공사를 붙이 번쩍하게 해제끼는 로력적위훈을 떨쳤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기본건물의 1층충파공사와 체육관콘크리트기초타입공사를 끝낸데 이어 벽체쌓기에서 공법의 요구를 지키면서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장자산소년단야영소건설을 맡은 시, 군돌격대원들은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여 드넓은 부지를 정리한데 이어 군인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건설공사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체육관건설을 맡은 도도시건설러단의 건설자들은 겨울동안에 천여㎡의 건설용목재를 마련한데 이어 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장강군, 동신군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양로원과 양생원건설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도에서는 건설이 진척되는데 맞게 마감건제를 맡은 단위들에서 계획된 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대책을 세우고있다.

특파기자 등 세 응